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450

2016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인간의 소외감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얼굴 표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산업공예학

최 진 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간의 소외감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얼굴 표현 중심으로-

A study of ceramic modeling of the Human Alienation theme

-At the center a representation of the face-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산업공예학

최 진 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간의 소외감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얼굴 표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재 연

이 논문을 디자인학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산업공예학

최 진 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진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서경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규춘 (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Ⅸ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2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Ⅱ. 소외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1. 소외감의 정의 ····· 5
2.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현상 ····· 8
3. 인간소외를 주제로 한 현대예술 ····· 11

Ⅲ. 얼굴을 통한 인간소외 표현 ····· 27
1. 얼굴의 상징성 ····· 27
2. 얼굴을 이용한 현대예술 ····· 31

Ⅳ. 작품연구 ····· 38
1. 작품계획 ····· 38
2. 작품제작 ····· 44
3. 작품해설 ····· 52

Ⅴ. 결론 ····· 69

참고문헌 ····· 7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1, <빈센트 반고흐> ····· 12
<표 2>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2, <에드바르트 뭉크> ····· 13
<표 3>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3, <에드워드 호퍼> ····· 15
<표 4>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4, <윤 예제> ····· 17
<표 5>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5, ····· 18
<게오르그 바젤리츠, 요르그 임멘도르프>
<표 6> 인간소외 조형작품분석 ····· 21
<표 7> 인간소외 사진작품분석 1. ····· 23
<표 8> 인간소외 사진작품분석 2. ····· 24
<표 9> 인간소외 설치작품분석 ····· 25
<표 10> SNS을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 39
<표 11> 기계를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 39
<표 12> 도시를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 40
<표 13> 얼굴을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 40
<표 14> 소외감을 표현한 작품 중 re-design 이미지 ····· 41
<표 15> 디자인 키워드,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1, 2, 3, 4) ···· 44
<표 16> 작품 성형과정 (작품1, 2 ,3, 4) ····· 45
<표 17> 디자인 키워드,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5, 6, 7, 8) ···· 47
<표 18> 작품 성형과정 (작품5, 6 ,7, 8) ····· 48
<표 19> 유약 조합비 ····· 50
<표 20> 컬러 투명 유 배합 비 ····· 5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20세기 입체주의와 추상주의를 대표하는 피카소 …… 31
<그림 2> P. PICASSO, 여인얼굴, 1962 …… 31
<그림 3> P. PICASSO, 여인두상, 1962 …… 31
<그림 4> Shaka (Marchal Mithouard) …… 32
<그림 5> 여인영, Invisible Man, 2012 …… 32
<그림 6> 콘스탄틴 브랑쿠시, sleep, 1908 …… 33
<그림 7> 콘스탄틴 브랑쿠시, 잠자는 뮤즈, 1908 …… 33
<그림 8> 모딜리아니, 두상, 1910 …… 33
<그림 9> 윤주일, 얼굴표정, 2004 …… 34
<그림 10> 박승임, Bothside, 1999 …… 34
<그림 11> Ah Xian, Human human-Lotus, 2010 …… 35
<그림 12> Ah Xian, Human human-Cloisonne Bust7-11 …… 35
<그림 13> 비버리 메이어리 …… 35
<그림 14> 비버리 메이어리 …… 35
<그림 15> 세르게이 이수포프, Mr. Holy day …… 36
<그림 16> 세르게이 이수포프, Lingering thoughtⅨ …… 36
<그림 17> Above Brian K. Mccallum ,The Parade,2002 …… 37
<그림 18> Allan Rosenbaum, Rester, 2003 …… 37
<그림 19> 작품계획도 …… 42
<그림 20> 유약시유 및 부분채색 과정 …… 5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 품 목 차

<작품 1> 소외_사회의 부속품 ····· 53
<작품 2> 소외_裡面(이면) 1. ····· 55
<작품 3> 소외_裡面(이면) 2. ····· 57
<작품 4> 소외_그림자(Shadow) ····· 59
<작품 5> 소외_look at myself ····· 61
<작품 6> 소외_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 63
<작품 7> 소외_ 혼돈 ····· 65
<작품 8> 소외-눈치 ····· 67
<연출사진> ····· 6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f ceramic modeling of the Human Alienation theme
-At the center a representation of the face-

Choi jin sol
Advisor: Prof. Park Jaeyeon, Ph. D.
Department of Industrial Crafts
Gran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contemporary society, it has become important than ever to reflect precisely on egos of social members as they are living without realizing their intrinsic inner aspects due to the feeling of alienation and consequent loss of individual personality. From this perspective, contemporary art needs to present values that are not universal in the society where the value has been universalized and play a role of helping enhance the intrinsic inner aspects independently.

Our identity has been segmented as single organization within the body called 'society' and our routine lives have been fragmentized as single component of a machine called 'city', giving rise to more problems psychologically. Alienation can be interpreted as distance been individuals' independent will and community's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this researcher considers that alienation stems from the standpoint towards other peopl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egative words uttered from the mouth, and comparison with others. Alien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may imply e distorted self in SNS, suppression of othe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ality inducing people to read the countenance of others, and cit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vershadowed by conf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ver the self lost by alien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Human beings are afraid of being disgraced, but are unaware precisely that they are being disregarded by others. We need to enhance our inner aspects by colliding with others, rather than being shaped by others. The works focused on visualizing the question as to where the feeling of alienation came from, and had a preponderance of angular shapes incorporating the philosophy of this researcher that inner aspect of a person should be shaped by himself/herself, not by others. For production, clay was used as primary material after the process of 3D application to the drawing. The focus was placed on expressing facial shape based on plate process, and digging process.

Dark and cold metal oil was used to express inner darkness. The art work was created in the form of relief in overall way to increase expressiveness. As auxiliary material, stainless mirror plat was used to increase perfection. The placidity was rendered at initial firing at 850℃ and secondary firing at 125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인의 사회는 개개인의 개성이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이면적으로 상실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가치를 제시하고, 그만큼 자신이 주체가 되어 본인의 내면을 다듬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사회라는 신체 속에 하나의 기관으로 명료하게 분절화 되었고, 우리의 일상은 도시라는 기계 속에서 하나의 부속으로 파편화되어 정신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다.

소외는 개인의 독립의지와 공동체의 집합의식 사이의 거리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즉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과 보는 것으로 비롯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철학가나 학자들이 말하는 소외감의 정의를 고찰해보면, 대표적으로 사회학자인 멜빈 시먼 (Melvin Seeman)이 정리한 5가지의 소외 중 자기고립을 보면, 본질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여러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반응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 들면 프롬의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경험하는 유형'과 리즈만의 '타인 지향적 인간'등을 예로 들 수 있다.[1]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의 저서 ＜고독한 군중(Lonely Crowd)＞에서 인간유형의 구조를 보면 '타인 지향형'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는 "외부지향형은 동료나 이웃 등 또래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유형으로 타인들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집단에서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겉으로 드러난 사교성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고립감과 불안의 모습을 가진다, 데이비드 리스먼은 이러한 모습이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얼굴이라고 말한다."[2] 현대사회의 소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정 문길 교수에 따르면 소외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상품, 인간교환, 인간시장의 근성들

1) 임춘식,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P.118.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301&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15.08.0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현대인의 의식구조를 형성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인간의 개성은 말살되고 창조성은 고갈됨으로써 인간을 지배하고 비인간화하는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간이 창출한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구조물은 인간의 욕구에 봉사하고 자유성과 창의성의 활동의 수단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3]라고 말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자가 보는 소외란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이중성, 기계로 인한 부속화로 박탈감이 느껴지며 SNS속에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 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억압과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 혼돈의 도시의 모습들로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소외상황을 조형적으로 풀기 위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는 얼굴을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형감과 얼굴을 변형시켜 인간소외를 표현 하고자 한다. 특히 인간소외는 본인이 타인과 비교를 함으로써 소외가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하여, 얼굴의 형태 중 눈과 입을 강조를 시켜 현대인의 인간소외의 문제점을 표현하고자 한다.

인간은 원초적이며, 쉽게 자기를 깎여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이 깎여지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타인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딪히면서 자신의 내면을 깎여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복잡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소외문제들을 시각화 하여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인간소외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원초적인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 정문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pp.38~3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소외감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얼굴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소외감의 대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예술에 표현된 인간소외를 분석한다.

첫째, 연구의 주제인 인간의 소외감을 정의하기 위해 사전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를 연구하고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현상을 고찰하여 현대예술에서 인간소외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시대의 사회의 정서와 평면, 입체, 사진, 설치 순으로 분석한다.

둘째, 얼굴의 상징성에 대해 연구하고, 얼굴을 이용한 현대예술을 분석한다.

셋째,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얼굴표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소외감을 표현한다.

작품은 소외감 가운데서도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이중성, 기계로 인한 부속화로 박탈감 SNS속에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 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억압과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에 도시는 혼돈의 모습 등등 이러한 소외상황현상을 얼굴을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1>은 얼굴을 형태를 단순화 하여 각진 형태로 표현하였고

<작품2>,<작품3>,<작품7>은 얼굴의 형태와 표정을 중점으로 표현하고,

<작품4>,<작품5>,<작품6>은 비교사회인 현대사회를 얼굴 중에 눈과 입을 강조하여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소외가 찾아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의 연구단계에서 조형제작은 소외감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리기 위해 작품의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형태의 제작이 용이한 조형토를 사용하였으며 점토 소성 이후에도 스텐 미러판을 이용하여 부조화 시켰다. 이는 타인을 보는 시선보다 자신을 보는 시선을 찾아주고자 타 재료인 거울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성형은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속파기 기법을 사용하였다.<작품4,5,6>은 표면적인 질감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거칠게 표현 하였고, <작품7,8>은 페인팅 작업으로 색체의 대비를 주어 소외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초벌 후에 어두운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천목유와 망간골드유약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색 화장토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성방법으로는 전기 가마를 이용하여 산화소성을 하고 초벌은 850℃이상에서 8시간, 재벌은 1250℃에서 1시간이상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소외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소외감의 정의

소외의 감정은 자연으로부터 타인까지 인간의 역사전반에 걸쳐 존재해 왔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인간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소외의 감정을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외는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분리되면서부터 시작되며,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신플라톤주의의 대표자인 플로티노스(plotinos)의 유출설에서도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외 개념은 근대로 넘어와 개인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바탕에는 헤겔(Hegel,1770-1831)[4]의 철학적 정의 이래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학문에서의 개념화 과정이 있었다. 여러 학문분야의 관점에 따라 정의된 소외의 개념은 무척 광범위하고 다양해 졌다.

"소외감"을 정의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전학적인 "소외"라는 용어의 의미를 보면, "소외"는 한자에서 "사귄 사이가 점점 멀어짐", "따돌려 멀리함"이라는 뜻의 "疏外" 혹은 "踈外"로 표기하며 전자는 소통할 소, 바깥 외 후자는 성길 소, 바깥 외자를 사용한다.[5] 영어와 불어로는 "alienation"이며 "타인의", "다른 것"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alius"에서 파생되었다. 독어로는 "entfremdung"이라 쓰이는데 "분리", "이탈", "이동"을 뜻하는 "ent" +"낯선 것", "이방의 것"을 의미하는 "fremd" + 접미사"ung"가 합성된 것이다.[6] 이를 통해 소외라는 용어는 타인으로부터 또는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 이탈을 통해 낯선 것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헤겔(Hegel)은 소외라는 단어를 근대문명의 비판적 의미로 처음 사용한

4) 관념철학을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이다. 칸트의 이념과 현실의 이원론을 극복하여 일원화하고, 정신이 변증법적 과정을 경유해서 자연·역사·사회·국가 등의 현실이 되어 자기 발전을 해가는 체계를 종합 정리하였다.

5)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C%86%8C%EC%99%B8, (검색일자 2015.9.16.)

6) 김종형, "인간학적 소외론'의 철학적 기초",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년 12월, p.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람으로 절대정신의 근본적인 한 계기이며, 개개인이 품고 있는 의지할 곳이 없는 듯한 감각이나 무 목적성, 실체상실의 감각 등이 소외 관념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즉 개인과 사회 간의 유대가 사라지거나 자기 자신의 향상심이 상실 되어버리는 감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소외를 자기 자신의 객관화라 이해하고 주체가 객체로 바뀌는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인간은 몽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즉 자신의 창조물인 철학, 과학 같은 것들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고,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는 소외는 인간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에 포함하고 있다.[7)]

즉 헤겔에 있어 자기소외는 자기의식의 소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기소외는 자기의 소외의식에 의하여 지양된다. 헤겔에 있어 정신의 자기소외는 이처럼 소외의식을 통한 지양에서보다 고양된 정신의 자기정립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정신은 다시금 자기실현의 본질에 따라 자기소외의 현상을 드러낸다.[8)]

한편 칼 마르크스(Karl Marx)[9)]에서는 노동의 소외로 전개되어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을 스스로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여겼고 자본주의적 노동아래에서 노동자의 소외를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생산수단과 생산 활동으로 부터의 소외, 유적존재(類的存在)로부터의 소외, 동료로부터의 소외, 이렇게 4가지로 분류 하였다.[10)]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소외는 노동자와 자본가(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의 계급투쟁을 야기 시킨다. 즉 무산자는 결국 피 착취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된다. 무산자는 마침내 빈곤으로부터 해방이야말로 자본가의 타도라는 방법에 의해 가능 하다는 것을 자각한다.[11)]

프롬(Fromm,Erich)[12)]은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해 형성된 소외개념으로 오늘날 사회적 성격을 분류하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13)] 칼 마르크스와 달리 소외는

---

7) 이재진, “인간소외현상을 표현한 도자조형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년 6월, p.3.
8) 정영도, 『철학사전 개념의 근원』, 이경, 2012, p.154.
9) 라인란트 출신의 공산주의 혁명가,역사학자,경제학자,철학자,사회학자,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이다.
10)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01192&cid=41978&categoryId=41982 (검색일자:2015.08.01.)
11) 정영도, 위의 책, p.156.
12) 독일의 정신 분석학자・사회학자(1900~1980): 인간의 여러 악덕은 사회 조건을 개혁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인본주의적・공동체적 사회주의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동의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기계, 국가, 타인 및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 분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4] 소외란 '인간이 그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유형의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인본주의적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낭만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자연에서 혹은 자기 자신과의 절연을 소외라 본다.

대표적 실증주의 사회학자인 멜빈 시먼(Melvin Seeman)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소외가 인간이나 사회의 여러 모습들 즉 ,주변성・고독・무규범성・불신 등을 서술한 것이라 전제한 후 소외란 무력감・무의미성・무규범성・가치상의 고립・자기고립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15]

① 무력감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그가 추구하는 결과나 보상이 생기도록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나 가망성으로 간주되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불리한 노동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나타낸다.

② 무의미성

사회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점차 구성원을 조직화할수록 합리성은 증대되나 인간은 자신의 직관을 통해 일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통찰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해 인간을 소외시킨다.

③ 무규범성

아노미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규범이 붕괴된 상황에 개인의 목적과 사회가 제공하는 수단의 조화가 불완전할 때 유발된다. 이것에 멜빈 시먼(M.Seeman)은 도덕, 문화적 붕괴, 상호불신과 같은 사회의 분위기와 개인의 심리상태를 포함하여 기대감과 보상 개념의 관계로 무규범성을 설명한다. 즉, 개인의 목적 성취에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수단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④ 가치상의 고립

---

13) 이재진, 앞의 논문(주 4), p.4.
14) 허혜진, "현대사회의 인간소외를 표현한 도자 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년 8월, p.7.
15) R.터커(저)·조희연(역), 『현대소외론』, 참한문화사, 1983, 1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목표나 신념에 대해 낮은 보상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거부를 의미한다.

⑤ 자기 고립

씨맨(M. Seeman)은 자기 고립을 본질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여러 활동에 종사하는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상적인 사회와의 괴리로 인해 불안정하며 외관에 집착하고 동조적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프롬(E. Fromm)의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경험하는 하나의 유형'이나 리즈만(D. Riesman)의 '타인 지향적 인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16] 월급만을 위하여 일하는 현대인이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요리하는 주부모습처럼 타인에 대한 반응을 위해 행동하는 것 또한 자기 고립의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현대사회가 타인지향적인 사회, 비교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멜빈 시먼(Melvin Seeman)이 정리한 5가지의 소외에서 자기 고립의 소외가 현대사회의 인간소외의 문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2.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현상

현대사회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극심한 변동을 겪어 왔다.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과 과학의 바탕으로 기계의 자동화를 이뤄내어, 물질적 수요의 충족으로 노공과 빈곤에서 해방되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보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시대, 능률만이 우선시 되어 인간존재가 무시되는 시대, 기계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 또는 최대생산, 최대능률, 최대소비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순응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16) 임춘식,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P.11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회 때문에 규칙이 생겨나고 획일적으로 인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이 사회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감옥 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아성찰, 자아 발견, 자존감이 상실되어 인간소외현상이 찾아오는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비전 문제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를 하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자기의 생각과 의식이 아닌 타인과 비교를 하며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는 비교사회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소외 현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면서 각 개인의 자존감의 회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인간의 휴식인 취미생활까지도 상업화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금전적인 이해상품의 관계로 전락됨으로써 본인을 비롯한 본인의 인격, 지식까지 조작하고 판매되고 있다.[17]즉 현대사회에서 인간상품, 인간교환, 인간시장의 근성들이 현대인의 의식구조를 형성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인간의 개성은 말살되고 창조성은 고갈됨으로써 인간을 지배하고 비인간화하는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간이 창출한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구조물은 인간의 욕구에 봉사하고 자유성과 창의성의 활동의 수단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18]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로 인한 인간소외현상을 4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에 의한 인간성 소외로 인간이 기계에 맞추어 인간성을 순응하는 현상.

둘째, 노동가치의 타율화로 인한 소외로, 현대인은 노동을 통해 인간을 본질적 활동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결론적으로 자본가의 사유물화 됨으로써, 노동력의 상품화에 의한 소외현상.

셋째, 조직사회에서 인간성 상실에 의한 소외, 조직, 집단 혹은 사회구조 안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고정화 혹은 획일화시켜 인간을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 메커니즘(mechanism)속에 부속 화 되는 현상.[19]

---

17) 조하나, “오브제를 활용한 삶의 은유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년 12월, p12.
18) 정문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pp.38~39.
19) 장진호,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교육의 의미와 과제』, 배영사, 1986, p.8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넷째는 SNS 사용으로 인한 소외감으로 SNS는 사람들과의 소통 및 관계 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SNS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대부분 인간소외는 인간관계에서 보여 지고 있는데 SNS을 끊으면 사람들로부터 잊혀 질 불안감과 친구들과의 관계유지와 그 속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자존감의 하락 등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과다한 SNS 사용으로 정서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 샤하르 교수 쓴 내안의 마음습관 길들이기에서는 “의존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삶의 원동력을 타인의 생각에서 찾는다.”라는 말이 있다. 결국 본인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 보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인간관계에서 본인을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는지는 타인들의 바탕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SNS사용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타인 지향적 인간형으로 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 본문에서 말했듯이 현대사회는 비교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가 샤르트르(J.P.Sartre, 1905~1981)는 무엇이건 나에 관한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반드시 타자를 거쳐야만 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20] 또한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이 1950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고독한 군중(Lonely Crowd)＞에서 타인지향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3가지의 인간유형을 제시한 것을 보면,

첫 번째로 ’전통지향형(tradition directed type)’은 전통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유형으로 원시적 전통사회에서는 전통과 과거를 행위모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전통지향형’ 성향이 지배적 성향 이었다, 두 번째는 ’내부지향형(inner directed type)’으로 가족에 의해 학습된 내면적 도덕과 가치관이 기준인 유형이며,19세기의 초기 공업시대까지는 가족에 의하여 일찍부터 학습된 어떤 내면화된 도덕과 가치관이 인간행위의 주요 기준이 되었다. 세 번째로 ’외부지향형(other directed type)’은 동료나 이웃 등 또래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유형으로 현대에 들어서는 주변의 또래집단이 대신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고도 산업사회에서 탄생한 ’외부지향형’은 타인들

20) 변광배,『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출판사, 2004, p.4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집단에서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사교성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고립감과 불안의 모습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린 인간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이 현대인의 얼굴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21]

현대인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분열되고 자기를 의식하지 못한 채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이 기계처럼 반복이 된다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내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이 큰 문제로 다가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삶이 의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지는지 모르고 비교와 한탄만 하다가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변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이대로가 좋다.' 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 부딪힐 것이다. 여기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자기 신념을 다시 바로 잡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조차 소외하고 있는 시대에서 더 이상은 대중의 가치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깎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인간소외를 주제로 한 현대예술

에리히 칼러(Erich Kahler,1885 - 1970)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 소외의 역사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22]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소외는 인간의 철학, 정치학,사회학, 심리학, 미술학 까지 다양한 학문의 주제로서 자리 잡아 왔다.

시대적으로 예술가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고립된 사회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촛불 같은 존재라고 본다. 현대예술 작품 속에서 소외감은 초현실주의 표현으로 형태의 변형을 시키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묘사하여 내면의 비극적인 모습을 극대화 시켜 작가의 심

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301&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자: 2015.08.09.)
22) 이지영, "인간의 소외감을 상징화한 조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년 8월, p.5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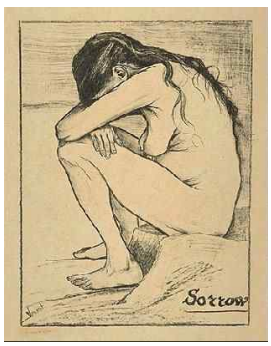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리적인 모습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 시대의 사회성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기에 좋은 표현의 주제로 인간의 소외감을 표현한 많은 작가들이 현시대까지 인간소외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에서는 각 시대에 따라 소외감을 어떠한 표현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알아보고 회화작품, 조형작품, 사진작품, 설치작품까지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업내용과 표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간소외를 다룬 회화작품을 보면,

<표1>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1, <빈센트 반고흐>

빈센트 반고흐 (Vincent Willemvan Gogh, 1853~1890)	
작품 사진	작품 경향
 Sorrow 1882 (출처: http://terms.naver.com)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여인의 절망감과 소외감이 잘 표현된 드로잉 이며 인간의 운명과 고통, 슬픔에 깊게 공감되는 작품이다.
 별이 빛나는 밤 1889 (출처: http://terms.naver.com)	고흐가 정신병과 싸우며 그린 작품으로 당시 자신의 내면의 소외감과 자연에 대한 반 고흐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구현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작품 [Sorrow] 을 보면 드로잉 작품인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여인은 크리스틴 이라는 매춘부 출신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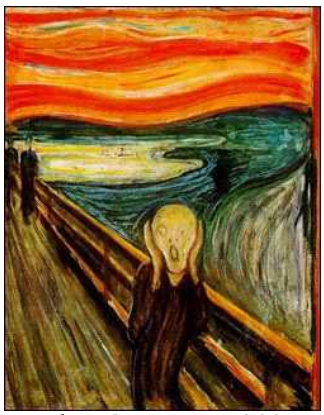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 고흐와 동거를 하며 지냈는데 그녀는 알콜 중독에 매독 환자였다. 빈센트의 가족은 그가 크리스틴과 지내는 것을 우려하였고 그녀는 고흐 가족의 반대에 의해 떠나게 된다.[23] 사회적으로나 고흐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의 절망감 속의 소외감이 내제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는 본인의 마지막 삶의 1년을 정신병과 싸우며 그린 그림으로 고갱과 다투다가 자기의 귀를 잘라 아를의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간혹 발작을 일으켜 "나는 자신에게 가해진 미치광이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한다."며 1889년 5월 아를에서 가까운 상 레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24]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을 되풀이 하였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은 그 발작 사이에 그린 상 레미 시대의 작품으로써, 당시의 사회적, 개인적으로 소외된 상황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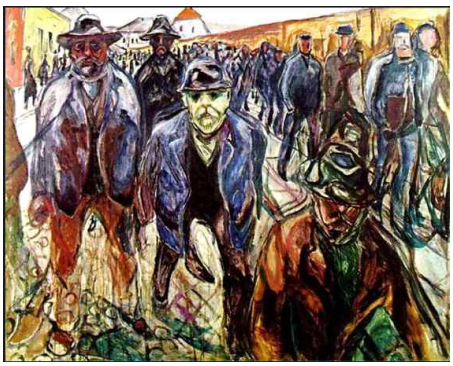
<표2>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2, <에드바르트 뭉크>

에드바르트 뭉크 (Edvard Munch 1863~1944)	
작품 사진	작품 경향
 The Scream 1893 (출처::http://terms.naver.com)	뭉크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작품속의 인물을 S자 모양으로 비틀고 입을 열어 경악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현대인들의 불안한 내면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단순화 된 사람의 모습만으로도 그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다 느껴지며, 구도와 색채의 대비에서도 인간의 이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

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2586&cid=40942&categoryId=34397 (검색일자: 2015.08.09.)
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2586&cid=40942&categoryId=34397 (검색일자: 2015.08.0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shes 1894 (출처:http://terms.naver.com)	어린 시절 모친의 죽음에 대한 영향으로 뭉크는 상실감, 절망감, 소외감을 주제로 많은 작업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보면 왼쪽 구석에 있는 남자를 이질감이 느껴지게 표현하여, 자신의 내면의 자아의 모습을 흑백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본다.
 Workers Returning Home,1916 (출처:http://terms.naver.com)	시대의 노동자의 모습들을 담아낸 작품이다. 작품을 보면 그 시대의 사회성과 노동자의 삶을 짧게나마 느낄 수 있고, 노동으로 인한 사회의 부속화로 개개인의 상실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에드바르트 뭉크 [Street in Asgardstrand]의 작품으로, [The Scream 1893] 는 뭉크가 1892년에 앓았던 끔찍한 공황발작이라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뭉크는 자신이 크리스티아니아 교외에서 산책하고 있었을 때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두 명과 함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한쪽에는 마을이 있고 내 아래에는 피오르드가 있었다. 나는 피곤하고 아픈 느낌이 들었다. ··· 해가 지고 있었고 구름은 피처럼 붉은색으로 변했다.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다. 실제로 그 절규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진짜 피 같은 구름이 있는 이 그림을 그렸다. 색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25)

이 그림은 우울과 공황발작에서 오는 공포감을 압도적으로 나타낸 작품으로

25) http://blog.naver.com/naenggi?Redirect=Log&logNo=10164673159(검색일자: 2015.08.02.)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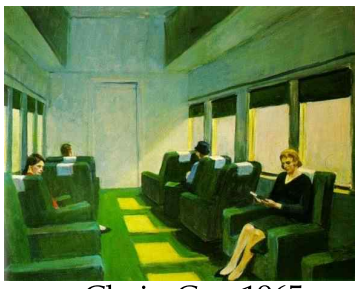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면세계를 활보하는 자아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Ashes 1894]를 보면 상실감으로 인한 절망감에 휩싸인 두 인물이 서로 외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서 있는 여인과 구석에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서로 색채의 대비와 서술적인 구도를 사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Workers Returning Home 1916]는 작품을 보면 화면으로 넘어 소실점까지 도로를 따라 지친 노동자들의 행진을 그린 그림으로 상실된 모습을 표현하여, 노동자의 행렬의 전방으로 배치되어 웅장함을 증대시켜준다. 정면에 있는 남자, 그 다음 낮은 눈높이 남자를 표현함으로 전경의 숫자가 순차적 눈높이를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노동자 남자가 가운데 우리를 지나서 걷고 있는 효과를 보여준다.

<표3>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3, <에드워드 호퍼>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	
작품 사진	작품 경향
 Chair Car 1965 (출처::http://terms.naver.com)	복잡한 현대의 사회에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열차의 모습은 높은 천장, 막힌 창문, 눈부신 햇빛이 쏟아지는 객실 실내는 지나치게 크게 묘사함으로 현대인의 소외감을 함축된 표현을 볼 수 있다.
 Hotel Room 1931 (출처:http://terms.naver.com)	좁고 어질러진 호텔 방에 앉아 있는 여인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희망을 잃은 듯 보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표현하여, 관람자까지도 그 시간에 있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해석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Woman in the Sun 1961 (출처:http://terms.naver.com)	그림속의 여성이 방금 일어난 모습을 연상시키게 된다.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햇빛을 향해 공허한 시선을 보낸다. 그 시선 속에 세상에 대한 거부와 내면의 고독감을 읽을 수 있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으로 현대인의 외로움을 그리는 화가이면서, 일상의 공간, 빛, 인물을 통해 소외감을 강조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Chair Car-1965]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지만, 각 개인의 시선은 결코 서로 이어질 수 없게 표현함으로써, 모두 자기만의 의자에 박혀 영원한 타인이 되어 버리는 인간의 고독한 심리가 보여 진다.

[Hotel Room 1931]에서는 빛을 등지고 있는 여인의 얼굴은 어둡게 보이게 표현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해 보이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에서 언제 소외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함을 어질러진 호텔방을 보면 알 수 있다.

[A Woman in the Sun 1961]에서 여인의 나체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 보이는 작품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4>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4, <윤 예제>

윤 예제	
작품 사진	작품 경향
 My Decembe 2012 (출처:http://www.opengallery.co.kr)	웅덩이 속 여성의 모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 내면의 내제된 모습을 외면하고 싶어 본인 자신을 소외하는 모습이 보여 진다.
 stay 2013 (출처:http://www.opengallery.co.kr)	장소적 특징으로 늪을 표현하고, 배경은 안개가 낀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작가의 내면세계(불안, 상처, 소외감)를 그린 작품이다.

윤예제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단절 되어가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표현한 작가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늪, 웅덩이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간다.

[My Decembe 2012]은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의식을 웅덩이로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마음속에 불안과 상처, 두려움을 표현함으로써 어둠을 감싸는 공간이며 도피처이자 방과 같은 존재를 나타 내었다.[26]

누구나가 겪는 사회화 과정들안에서 '나'의 모습을 '늪'과 '웅덩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강조함으로써 마음의 휴식과 위안, 그리고 동시에 도피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27]

---

26) http://www.google.co.kr/search?hl=ko&site=imghp&tbm=isch&source=hp&biw=1280& (검색일자: 2015.08.3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5> 인간소외 회화작품분석 5, <게오르그 바젤리츠, 요르그 임멘도르프>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 1938~)	
작품 사진	작품 경향
 불안Ⅱ 1999 (출처:http://terms.naver.com)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을 격렬한 터치와 그림을 거꾸로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의 모습을 구도적으로 불안감을 주어 표현하였다. 또한 남녀의 시선이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방향성이 개성이 다른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제. 16Ⅳ 1987 (출처:http://terms.naver.com)	그림 상단 쪽에 가시를 배치하고 여성의 일부분도 가시가 뒤집어 쓴 모습을 느낌을 표현하였다. 고통 받는 여인의 모습을 그림을 거꾸로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불안함을 내포하고 소외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요르그 임멘도르프(Jorg Immendorff, 1945.6~2007.5.28.)	
작품 사진	작품 경향
 Solo 1988 (출처:http://terms.naver.com)	그의 작업은 사실에 기반 한 복합적인 상징체계를 통해 실제 세계를 은유하는 것이 특징으로, 남성의 모습을 보면 큰 의자에 흡수 되어버린 느낌을 남성의 표정과 색채의 대비로 볼 수 있는데 뒤에 배경을 보면 사회적으로나 어지럽고 복잡한 모습이 보여 허무한 표정인 남성의 모습과 상반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27) http://www.google.co.kr/search?hl=ko&site=imghp&tbm=isch&source=hp&biw=1280& (검색일자: 2015.08.3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독일 작가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의 작품은 야생적인 터치와 컬러를 통해 격렬하게 표현한 신표현주의 기법의 화가이다.

[불안Ⅱ 1999]을 보면 작가의 특징인 격렬한 터치의 표현이 보인 작품으로, 사회의 이면적인 모습으로 소외감을 받는 여성, 남성의 모습을 즉 그 당시 고통 받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본다.

[무제. 16Ⅳ 1987]은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직면하고, 자아내면을 들어다 보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표현된 작품으로 해석하여, 나약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여 불안, 소외의 모습을 가시화시켜, 작가의 특징인 그림을 거꾸로 배치를 시켜 사회적 불안함을 내포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olo 1988]은 독일의 대표적인 현대작가로 게오르그 바젤리츠가 겪어야만 했던 정체성의 위기, 현대예술에 있어서 문제성을 제기하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개념성과 사회성을 무게로 두고 작업하였다.[28] 독일의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공허함과 함께 권력의 남용, 가난의 현실로 인한 인간의 소외와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다.[29] 특히 이 작업에서는 배경과 인물간의 색채의 대비를 통해 고독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한다.

28) http://mahane1004.blog.me/110152825951(검색일자: 2015.08.30.)
29) 이지영, 앞의 논문(주 19), p.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두 번째로 인간소외를 다룬 조형작품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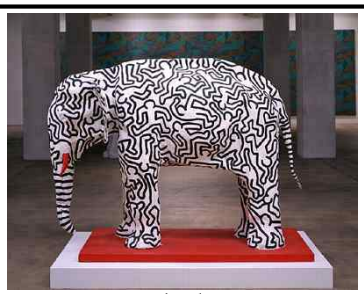
<표6> 인간소외 조형작품분석

장 피엘 라로크 (Jean-Pierre Lacocque 1953~)	
작품 사진	작품 경향
 Untitled(Head Series),2002 (출처:http://www.claypark.net)	제작과정을 숨기지 않는 작가로써 미완의 개연성을 주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스러운 왜곡을 통해 인물의 형태는 개성화를 가지게 되어, 즉 자아를 찾으려는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불안, 소외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시다 쿠오 (Shida Kuo 1997)	
작품 사진	작품 경향
 Untitled 1998-03 1997-33, (출처:http://terms.naver.com)	사회가 제시한 인간상의 모습을 거부하고자 인간의 모습을 단순화 시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각 개인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일러주고 자존감을 찾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빌마 빌라베르데(Vilma Villavedre 1942~)	
작품 사진	작품 경향
 Figura 1982 (출처:http://terms.naver.com)	틀 안에 여성을 끼워 넣어 시각적으로 억압된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	
작품 사진	작품 경향
 Tetede Diego 1955 (출처:http://terms.naver.com)	거친 모습의 인간상으로 인간의 고독한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형태를 깎아 내린 기법으로 자존감을 찾기 위한 자신만의 싸움을 표현하고자 한다.

키스 해링(Keith Harring 1985~ 1990)	
작품 사진	작품 경향
 Untitled 1985 (출처:http://terms.naver.com)	코끼리를 이용하여 거대한 도시를 표현함으로써 사회에서 부속되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엉켜진 사람들로 보여 진다.

까미유 클로델(Camille Claudel 1905)	
작품 사진	작품 경향
 소외된 사람들 1905 (출처:http://terms.naver.com)	사회가 요구한 여성상을 거부하고 남성상에 동화하려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녀의 삶을 이 작품을 통해 팔과 손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소외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조형화 시켰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ntitled(Head Series),2002]은 작가 장 피엘 라로크는 사실 원숙한 제작자로서 전통적인 예술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미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건조와 소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갈라짐과 우연성을 강조하고 활용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을 흙의 표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드로잉이라고 여김으로써, 이것은 일종의 드로잉으로 바뀌고 이로써 오브제는 저마다 일종의 구체적인 표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Untitled 1998-03 1997-33,] 이 조형은 비어져 있는 공간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작가는 형태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일화 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거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본다.

[Figura 1982]은 작가의 실험정신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인물형상과 오브제의 새로운 세팅으로 재활용되며, 도자설치(Fitting) 개념으로 나아가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 도자조각 형상들로 전환한 데에는 시공간의 차원을 끌어들여 경험할 수 있는 회화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을 담아낼 수 있는 도자 조각 설치작업에 주력하게 되었다.[30] 이에 초기 작품으로 억압당한 인간의 소외감과 우울함이 보여 진다.

[Tetede Diego 1955]을 보면 인간소외에 대한 고뇌와 고독감을 나타내어 살을 점점 붙여나가는 전통적 기법과 달리 오히려 깎아낼 수 있을 만큼 덜어낸 기법으로 신체를 가느다랗게 표현하여 강하고 인간의 고독한 내면을 강렬하게 드러낸다.[31]

[Untitled 1985]은 키스해링의 작품으로 작가 본인이 뉴욕이라는 도시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 즉 소수 민족 등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가 외면한 모습들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Camille Claudel 1905]은 비련의 천재 조각가 까미유 끌로델(CamilleClaudel) 작품으로 비참한 삶은 유년기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

---

30) http://www.claypark.net/bbs/board.php?bo_table=overseasartists&wr_id=69 (검색일자: 2015.08.15.)

31) 허혜진, 앞의 논문(주 11), p.2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녀의 생애를 보면 그녀의 모친은 항상 그녀를 냉대함으로써, 못마땅하여 훗날 정신병원에 몰아넣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까미유는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니며 파괴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사내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소외된 사람들, 1905]는 이러한 행동성향이 발전을 거듭하여 예술적 감수성이 더해짐으로써 나온 작품이라고 본다.

세 번째로 인간소외를 다룬 사진작품을 보면,

<표7> 인간소외 사진작품분석 1

사진작가 최민식(1928년 3월 - 2013년 2월 12일)	
작품 사진	작품 경향
 부산,대한민국 1959 (출처:http://terms.naver.com)	시장에서 고구마를 팔고 있는 어머니와 자식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사진 속의 인물은 마른 팔다리와 깔 것 하나 없이 맨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과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지쳐있는 표정에서 삶에 대한 고통이 묻어난다.
 부산,대한민국 1961 (출처:http://terms.naver.com)	60년대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며 소년을 보호하자라는 문구와 인물의 모습들은 비극적인 상황을 직면 할 수 있다.

[부산, 대한민국 1959,1961]은 사진작가 최민식의 작품으로 가난을 담는 사진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로 유명하다. 최민식은 “인간이 거기 있기에 나는 사진을 찍었다.”, “나는 계속 걸었고 언제나 카메라와 함께 있었다.”, “내 사진은 나를 찾아 주었다.”,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소외의 현장을 담은 내 사진은 ‘배부른 자의 장식적 소유물’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 한다,”라고 말한다.[32] 작가가 내제된 의미가 잘 표현한 인간 중심의 작품으로 예술과 삶이 만나 잘 어우러진 사진작품을 남겼다.

<표 8> 인간소외 사진작품분석 2

사진작가 Werner Biscof	
작품 사진	작품 경향
 SouthKorea,Pusan 1952 (출처:http://terms.naver.com)	작가는 1952년대 한국으로 여행으로 와 전쟁이 준 모습들을 카메라 안에 담았다. 이 사진은 한국전쟁 때문에 집도 없어진 고아 소년들을 담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사진작가 오세철	
작품 사진	작품 경향
 Black City 2007 (출처:http://photohistory.tistory.com)	회색 도시를 담는 작가로 화려한 도시의 내면을 찍어 서로의 감정을 배설하기 바쁜 도시인들과 그 배설물과 욕망의 찌꺼기를 담는다.

[SouthKorea,Pusan 1952] 각본에 짜여 지고 아름다움만 찍는 사진이 아닌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을 찾아다녀 카메라 속에 담는 작가

32) http://sati0829.blog.me/220193345856(검색일자: 2015.08.15.)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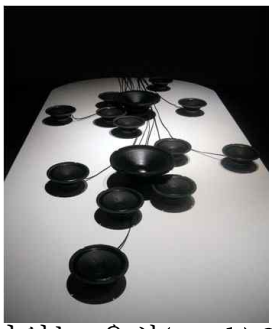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다.

[Black City 2007]작가는 “도시는 회색이다. 화려한 간판의 네온싸인 날 좀 봐 달라는 광고문구들의 아우성이 온 도시를 휘감고 있지만 그 네온싸인의 색의 향연은 하나의 흐느낌으로 보여 질 때가 많다. 너무나 화려해 사람을 유혹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짙은 마스카라가 흐를 정도의 무채색 울음소리가 들린다. 도시와 도시인은 유기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시인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각지고 날선 얼굴로 으르렁거린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조차 도시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 잘 기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33)

네 번째로 설치작품을 보면,

<표 9> 인간소외 설치작품분석

설치작가 김영섭 [맛있는 음식(work)] 2008,설치작품	
작품 사진	작품 경향
 맛있는 음식(work),2008 (출처:http://blog.ohmynews.com)	“소리를 식사처럼 먹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작품으로 타인의 말들을 많이 듣고, 내 자신 또한 타인의 말로 인해 타인에게 맞춰지는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훈[완전평형상태 Absolute Equation]-2013,설치작품34)	
작품 사진	작품 경향
	가운데 위험한 액체가 있고 평형상태를 이루지 못하면 액체는 쏟아진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산소통을 내면의 욕망으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욕망이 터지게 된다면 이 완전 평형 상태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33) http://photohistory.tistory.com/m/post/2726# (검색일자: 2015.08.0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완전평형상태 Absolute Equation-2013 (출처:http://blog.naver.com/everlsk?Redirect=Log&logNo=40210655301)	이다. 이 속에서 불안한 현대인의 모습과 시한폭탄 같은 위험한 도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결핍,2013 (출처:http://blog.naver.com/everlsk?Redirect=Log&logNo=40210655301)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라는 말처럼 무엇인가에 목말라하던 인간은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다시 순식간에 새로운 욕구에 목말라 한다. 유리 상자 안 상어의 이빨사이로 물을 떨어져 바로 밑에 있는 열판에서 순식간에 기화 되는 설치 작품으로 긴장과 갈등이 연속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보여 진다.

[맛있는 음식(work),2008] 자신이 겪었던 유학시절의 소외감을 스피커를 이용하여 소리의 파장과 단절된 음향에 담고 있으며, 작가는 소외감을 주는 말들을 음식이라 표현하여, 일상에 필요한 것이지만 억압의 기호이다.[35]

[완전평형상태 Absolute Equation-2013,], [화려한 결핍2013]을 보면, 작가는 작품을 통해 내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지만 내면에는 내제되어 있는 화, 불안, 관계 속에서의 공포 등이 잠재하고 있다, 하지만 내제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 현대인들은 자기계발의 미혹의 통제 된 모습을 풍자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상실되어가는 자아의 정체성과 자신의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현실을 사는 것 즉 심리적 현실을 성찰 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36]

34) http://blog.naver.com/everlsk?Redirect=Log&logNo=40210655301 (검색일자: 2015.08.19.)
35) http://blog.ohmynews.com/seulsong/310462 (검색일자: 2015.08.19.)
36) http://blog.naver.com/everlsk?Redirect=Log&logNo=4021065530 (검색일자: 2015.08.1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얼굴을 통한 인간소외 표현

과거의 예술가는 단순히 사물을 재현하고, 복사한 느낌을 주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의 경험, 역사, 감성, 주관적인 생각 또는 사물에 내제된 상징적 의미를 낸다. 얼굴은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대변하는 곳이고,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모티브 이다.

현대인의 자아의 모습을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및,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였다. 본연구자의 작품은 얼굴에 대한 일반적인 자화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소외를 표현하기 위해 얼굴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1. 얼굴의 상징성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상징은 인간이나 사물 집단 등을 전달할 때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해 매개적 작용을 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그리스어의 symbolon(증표, 기호, 표시 등을 뜻함)이 그 어원이다. 상징을 매개로 다른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작용이므로 인간에게만 부여된 정신작용 중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다.[37] 그리고 사물들을 이용 및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 하여, 내면의 무의식을 하나의 생명적인 의미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적인 상징의 의미를 보면 독일의 철학자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는 인간과 상징을 관련하여 “인간은 언어형식, 예술적 심상, 신화적 상징 혹은 종교의식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어떠한 인위적 매개물의 개입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38] 또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존재성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39]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물이나 형태에 의미를 부

---

3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15201&cid=50291&categoryId=50291 (검색일자: 2015.08.30.)
38) 에른스트 캇시러(저)·최명관(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창, 2008), p.41.
39) 성수연, “얼굴을 통한 자아표현 연구”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월, p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시켜 내면의 감정들을 상징화 시킨다.

삭스(Leonard Sax)와 랑크(Otto Rank, 1884～1939)에 따르면 상징의 본질은 그것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은밀한 혹은 숨겨진 사상을 표상 하고 있다고 했다, 상징의 많은 부분들이 성적인 것이지만 그들의 역할은 인간정신의 가장 심층적인 측면에까지 뻗쳐있다고 여겼으며 존스(Ernest Jones,1879～1958)는 '모든 상징은 자기 자신 및 가까운 혈연관계에 대한 관념, 즉 출생, 사랑, 죽음 같은 현상에 대한 관념을 표상한다.(1916)'고 이야기한 바 있다[40]

오스트리아 정식 의학자 막스 피카르(Max Picard, 1888~1965)는 "참된 사람의 얼굴은 보이는 것 뿐 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강한 힘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는 얼굴의 부분도 단지 보이지 않는 얼굴의 함축된 부분 같이 나타날 뿐이다"라고 말했다.[41]즉 얼굴이 내면적 심상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얼굴은 단지 표면에 불가하지 않는 기호, 상징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적 상징은 대상을 이미지화하여 실제의 대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예술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에 실존 하는 것처럼 내면의 감정과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 불교는 부처를 나타내는 것처럼 상징은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술적 상징 속에 조형미술의 상징을 보면 상징성이 특히 보여 지는 것은 원시미술 및 중세미술이며, 모두 불가시적인 절대자, 초월적인 힘이나 영혼에 관한 여러 관념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종교적 미술에서 보인다. 이들 외에 19세기 후반부터 문학에서 병행해서 나타나는 근대미술에서의 작품 또한 상징이 잘 표현된 예로 볼 수 있다. 원시미술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형상으로, 가끔 불가사의한 표현을 가진 인상이나 동물형, 괴물 형은 번영・다산・다수확을 의도하는 주술이나 종교적 의례의 의미를 지닌다.[42]라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는 극장 간판 화가들의 작품이 내면의 감정이 내제된 작품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단순히 사물을 재현해 내는 모방 작업 이라고 인식 되었던 것처럼, 작가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표현주의'[43] 작가들로 인해 시작되었다.

---

40) 잭 스펙터(저), 신문수(역) 『프로이트 예술미학, (풀빛, 1998), p.133
41) Max Picard(저), 조두환(역)『사람의 얼굴』, (책세상 1994) pp. 188~189
42) http://terms.naver.com ,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검색일자:2015.8,3)
43) 표현주의: 미술사와 미술비평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미술의 기본 목적을 자연의 재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현주의가 나타난 것은 시대적인 영향이 있는데, 표현주의가 명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05년경부터 이지만, 1880년대부터 그 전조가 나타났다, 표현주의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동시에 전개되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33년 나치의 탄압으로 해체되기 전까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표현주의가 발전했다, 표현주의는 야수주의, 초기의 입체주의, 인상주의,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연의 모방을 거부한 다른 여러 화가들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 비평가들이 1911년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44)

이런 현실에 대한 불안감은 표현주의 작가들로 하여금 인간의 내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인간의 존재, 본성, 가치를 표현하게 된 것이다. 표현주의는 내면세계의 한 실체를 예술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실묘사에 대립하여 정신적 내면의 감정표현을 예술개념에 주장하였고 시각적인 인상보다는 독창적,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45)

얼굴의 선은 경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자기를 에워싼 공간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46)이처럼 얼굴은 피상적인 영역과 비가시적인 영역,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개개인의 대표성을 넘어 한 사회의 관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얼굴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며, 느끼고 깨닫는 기회를 갖지만, 그 기회조차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얼굴은 눈에 보이는 표면이 아닌 내면의 감정을 표현 하는 것으로 예술에 있어 최고의 소재이다. 예술의 소재는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과 대상으로 하여금 변형이 이루어진다.47) 이는 얼굴이 내면의 감정과 자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얼굴은 상징으

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며, 르네상스 이래 유럽 미술의 전통적 규범을 떨쳐버리려 했던 20세기 미술 운동 중의 하나. 표현주의자들은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감정과 감각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회화의 선, 형태, 색채 등은 그것의 표현가능성만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성(구도)의 균형과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시되었으며, 왜곡은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4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5300&cid=42642&categoryId=42642 (검색일자:2015.08.17)

45) Hajo Duchting(저), 최정윤(역), 『어떻게 이해할까? 표현주의, (미술문화, 2007), p.8.

46) 권수경, "얼굴을 이용한 도자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월, p.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어떤 형태보다 중요한 소재가 된다.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외적인 자아이기 때문이며, 본인의 역사, 감정 등에 의해 나타난다. 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표현인 얼굴은 “얼굴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주시한다.”[48] 나를 보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자기 자신을 판단하며 상호관계를 갖게 한다.

그 당시의 표정과 감정에 따라 눈썹, 눈, 코, 입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 심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고자 함으로써, 타인과의 대면을 얼굴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다. 즉 우리의 본능은 직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알고 분석하는 본능이 있다.[49]

사회의 기준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과의 틀린 부분을 지속적으로 깎아냄으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을 억압함으로써 의식적인 단계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자신의 개성을 인정하고 계발해야 한다.[50]

현대사회의 변화 속의 사회구조로 인해 능력의 가치만 요구하며, 인간의 본질적 중요성이 아닌 타인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버리게 되어 스스로가 고립감 안에 갇혀 인간 소외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자는 얼굴을 표현함으로 자아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즉 인간소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실재하는 존재의 외형을 표현 한 것이 아닌 철학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 심상을 표출하는 매개체이자 현대사회 속에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자아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 한 것이다.

---

47) Max Picard, 위의 책, pp.138-139.
48)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인간사랑,2001), p.117.
49) 조용진, 『얼굴 표현양식의 한국적 근대성』, 월간미술 (서울 ; 중앙일보사, 2000. 1), p.96
50) 강현수, "얼굴형상을 통한 억압된 자아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13 12월, p.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얼굴을 이용한 현대예술

예술 작품들을 보면 사실표현의 완벽성 보다는 내적의 의미를 내포하여 작가의 내면감정을 중시하는 표현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얼굴은 자아 내면을 대변하는 자화상으로써 내면을 표현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작품제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얼굴의 이미지를 표현한 다양한 현대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20세기의 입체주의와 추상주의를 대표하는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8)

<그림2>P.PICASSO-[여인얼굴] 1962, 33×24×16cm

<그림3>P.PICASSO-[여인두상] 1962,32×25.5cm

<그림 1~3>은 피카소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작품을 보면, 변형과 단순화를 통해 얼굴이 해부학 적 특징과 상관없이 선 위주의 형태로 단순화시켜, 실제적인 얼굴과는 많이 변형 되었지만, 얼굴의 이미지 전달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Picasso)의 작품들을 보면 추상주의 화가로써 인체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 결합하여 조형화 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그림 3>[여인두상, 1962]를 보면 면을 대담한 직선으로 구분해서 해체 후 재구성시켜, 얼굴의 이미지를 변형하고, 단순화를 시킨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변형된 얼굴이지만, 실제적인 얼굴의 이미지 전달이 확실히 되고 있다.

얼굴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작가 스스로 작품을 시대에 흐름에 맞는 미적 관찰을 함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보다 더욱더 강한 이미지로 완결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51]

51) 이예원, "얼굴이미지를 응용한 도자 실용기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월, p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 Shaka [Marchal Mithouard]

<그림 4>는 Shaka[Marchal Mithouard]는 화려한 무지개 색깔로 다양한 형태와 선을 사용하여 인간의 욕망을 독특하게 묘사하였다. Shaka는 인간의 내적 갈등의 감정 요소를 확대시켜 놀라운 입체효과를 만들어 캔버스 위에 조각 작품으로 보여준다. 복잡한 자아내면을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피카소와의 다른 변형의 이미지가 보여 진다. 이러한 표현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표출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해석된다.

즉, 잠재된 내면의식을 사회에 개입시켜 자기실현을 구축하고, 본인 스스로 현실적 의미를 예술이라는 형태를 빌어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52)]

<그림 5>은 여 인영 작가의 작품으로 얼굴표현 중심으로 소외를 다룬 작품이다.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작가의 말대로 소외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본인의 삶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의 전환이라고 함은 비교의 의식 버리고, 본인에게 집중하여, 내적의 고립감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존감을 지켜야한다.

<그림5>여인영[Invisible Man]나무보드유채,
200×200cm,2012

52)김규연, "육면체 변형을 통한 도자 조형 연구"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월, p.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을 보면 한 사람의 절망감, 무력감이 보인다. 어두운 색을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형태로는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있되. 면의 분할을 이용하여 표현 하였다.

<그림6>콘스탄틴 브랑쿠시-[sleep],1908,marble

<그림7>콘스탄틴 브랑쿠시-[잠자는 뮤즈],1910

또한 콘스탄틴 브랑쿠시 (Constantin Brancui,1876~1957)는 현대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불리는 조각가이며, 독자적으로 상징적 추상조각을 밀고나간 작품을 만들었다. 재질을 살리고 형태를 단순화, 추상화시킴으로써 표현력을 높여 고유의 생명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여[53], Shaka(MarchalMithouard) 와 비교를 둘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림 4>와는 다른 작업으로, 윤곽의 세부를 삭제하는 단순화 작업으로 상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8>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 [두상(Head)]

<그림 8>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1884~1920)의 작품 [두상(Head)], 1910에서는 현대적인 감각보다는 동양적인 명상을 나타내는 조용한 표정이 특징이다. 이 두상에서는 엷은 미소와 부드러워 보이는 눈이 평온한 신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에 비하여 이작품은 두부의 단순화가 극도로 날카롭게 강조되어 있으며 콧대의 긴 선과 뾰족한 턱의 강한 중심축 선이 특징이다.[54]

53) http://sugayasoap.co.kr/39584806 (검색일자.2015.8.6)
54) 열화당 편집부, 『현대미술 용어사전(미술문고 17)』, (열화당, 1976), p.19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9> 윤주일 [얼굴표정], 2004

<그림 10>박승임 [Bothside]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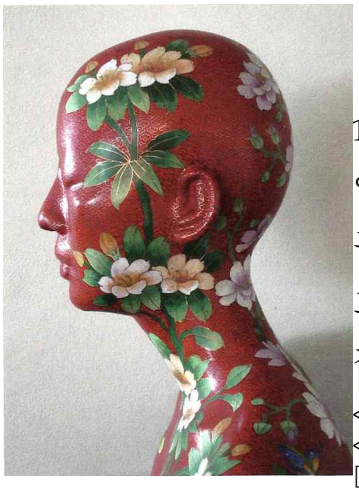
<그림 9>을 보면 윤주일 작가의 작품은 얼굴이미지의 변형과 재창조를 통해 작업하는 우리나라의 인간이 지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표정을 여러 개의 덩어리 흙 조각으로 분할과 결합방식을 통해 공간속에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그의 작품 <얼굴표정>은 분과 결합의 이중구조로 완성된다. 평면의 스케치를 통해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와 표정을 결정하고 표정의 구조에 따라 임시적으로 분할선이 그려진다. 얼굴의 분할을 진행하는데 우선 고려되는 것은 눈, 코, 입 등의 주요기관과 근육구조의 활용이다.[55] 이상과 같은 작업을 살펴보면 마치 "모든 것을 기하학적 도식, 입방체로 환원시키고 있다"라는 큐비즘(입체주의)의 탄생배경과 맥을 같이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56]

<그림 10> 박승임의 [Bothside] 1999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며 대립하는 이중적 자아(인간의 이상과 현실, 논리와 직관, 이성과 감정 등)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자 한다. 자아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인식함으로서 스스로를 대면하여 공간적인 부분을 내면의 모습인 제 3세계의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55) 유정, "얼굴이미지를 응용한 도자 조형 연구",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월,p.22
56) http://blog.naver.com/cara074/100033327844 (검색일자:2015.7.2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1~12>에서 아 시안(Ah Xian, 1960~)은 인간의 내제된 심상을 기본적인 인체 형태를 바탕으로 드로잉과 조각을 통하여 표현 한다. 인체 도자 형상 위의 드로잉은 전통에 입각한 방식으로 작가의 정서를 보여 준다.

<그림11>Ah Xian,[HumanHuman-Lotus],2010
<그림12>Ah Xian,
[HumanHuman-Cloisonne Bust7-11],2010

<그림 11>[HumanHuman-Lotus,2010]와 <그림 12> [Human Human-Cloisonne Bust 7-11,2010]은 인체의 형상을 자연물의 드로잉과 작은 패턴들로 꽉 채운 작품이다. 모두 전통적인 색채와 문양을 이용하여 화려함 속에 감춰진 인간의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드로잉 안에 감추어 있는 인간의 모습은 복잡한 세상에서 단절된 느낌을 두 눈을 감게 하여 표현하였다. 소재로 인한 서정성과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비버리 메이어리 (beverly mayeri)의 작품은 내면세계를 이루는 인간 감정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의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인간 내부의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내성의 순간을 묘사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싶은 열망과 인간본성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본질이 사라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표현하고자 한다.[57]

<그림13> 비버리 메이어리 <그림14> 비버리 메이어리

또 비버리 메이어리의 작품은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표면을 보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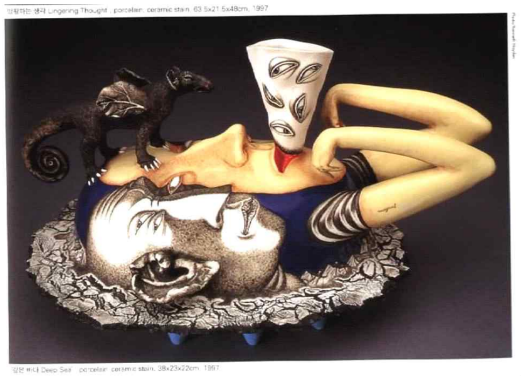
57) 석창원, "초현실주의 양식에 근거한 도자 조형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3.12월, p.2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3~14>을 살펴보면, 길고 좁은 얼굴은 분해함으로써, 하나의 얼굴로 모아져서 균형이 잡혀 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하는 듯 작은 눈과 긴 코, 작은 입, 커다란 귀로 이루어진 얼굴은 자의식에 빠져 꿈을 꾸는 형상으로서 초현실적으로 표현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5>[Mr. Holy day]
세르게이 이수포프(Sergei Isupov,1963~)



<그림16>[Lingering thought]
세르게이 이수포프(Sergei Isupov,1963~)

<그림 15~16>은 세르게이 이수포프(Sergei Isupov,1963~)는 인간의 내재된 모습을 도자로 표현한다. 기본적인 얼굴의 형태 위에 다른 형태를 조합하여 초벌 도자위에 드로잉을 하고 색채의 느낌을 회화적인 표현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5>[Mr. Holy day]는 세 남자의 흉상이다. 각 인물이 얼굴 안에 얼굴을 지니고 있는 모습인데 외부의 인물과 내부의 인물은 동일인 이지만 시선과 표정에 있어 다른 생각을 지닌 두 인간을 보여준다. 흑과 백 혹은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로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림 16>[Lingering thought]는 여러 가지의 오브제들을 조합하여, 각각의 의미를 둠으로써 두 개의 얼굴을 결합함으로써 그 중 하나의 얼굴에는 일반적인 눈이나 귀의 모습이 아닌 그만의 주관적인 이미지로 왜곡하고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7> Allan Rosenbaum, Rester, 2003The Parade,2002

<그림18>Above Brian K. Mccallum

<그림 17> [The Parade]는 몸은 하나이지만 두 개의 얼굴을 표현하여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형상화 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얼굴의 모호함을 배재한 명백성만을 부각시켜 그 안에 기록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간과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58] 또한 사람 의 내면을 머리 위의 장식을 줌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한다.

<그림 18> 작가는 르네 Margritte의 작품을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초현실주의를 연상 시킨다. 작가는 개인의 기억, 미술사, 인테리어와 도시 환경에서 도태된 개체 및 이미지를 가지고와 친숙한 이미지의 구성 조합으로 조각을 함으로써 작품의 은유적 가능성과 일상 세계에서 개체의 새로운 광명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작품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며 보안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 속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59]

58) 오선경, "얼굴을 통한 인간의 내면성 도자표현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2월, p.44
59) http://www.ceramicstoday.com/potw/rosenbaum.htm (검색일자: 2015,08.3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작품연구

1. 작품계획

1) 디자인 발의

지금은 현대 사회 속은 비교의 사회이다. 이러한 자아이론을 제시한 이유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가치를 제시하고, 그만큼 자신이 주체가 되어 본인의 내면을 다듬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사회라는 신체 속에 하나의 기관으로 명료하게 분절화 되었고, 우리의 일상은 도시라는 기계 속에서 하나의 부속으로 파편화되어 정신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다. 소외는 개인의 독립의지와 공동체의 집합의식 사이의 거리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즉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과 보는 것으로 비롯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소외는 본인이 타인과 비교를 함으로써 소외가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하여, 얼굴의 형태 중 눈과 입을 강조를 시켜 현대인의 인간소외의 문제점을 표현하고자 한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회 구조속의 생활로 인해 자기의 본질 적인 문제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속의 모습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이중성과 기계로 인한 부속화로 박탈감이 느껴지며 SNS속에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 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억압과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 혼돈의 도시의 모습들로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소외상황을 조형적으로 풀기 위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는 얼굴을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형감과 얼굴을 변형시켜 소외감을 표현 하고 한다.

인간은 원초적이며, 쉽게 자기를 깎여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이 깎여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타인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딪히면서 자신의 내면을 깎여져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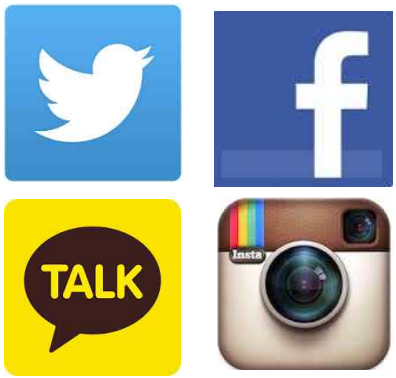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아이디어 도출

본 연구자는 현대사회에서 현대인의 소외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고찰하여, 소외의 현상의 이미지를 찾아 연구자는 얼굴 표현중심으로 인간의 소외감을 표현하고자 한다.

<표 10> 작품의 모티브가 된 SNS을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SNS을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이미지	내용
 (출처:www.google.com/imghp?hl=ko)	SNS을 통해 사람들이 타인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 안에서 소외감이 생기며, SNS 속에서 자신을 왜곡함으로써, 현실과의 다른 괴리감에 빠지게 된다.

<표 11> 작품의 모티브가 된 기계를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기계를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이미지	내용
(출처:www.google.com/imghp?hl=ko)	현대인들은 사회라는 기계에 부속 화 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좌절감과 포기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현대인들이 기계와 본인을 비교하는 경우도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2> 작품의 모티브가 된 도시를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도시를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이미지	내용
   (출처:www.google.com/imghp?hl=ko)	도시의 혼잡한 모습, 꽉 막힌 도로의 모습 또한 도시의 어두운 모습이 인간의 내면의 모습과 닮아 보인다.

<표 13> 작품의 모티브가 된 얼굴을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얼굴을 통한 소외감의 이미지	
이미지	내용
 (출처:www.google.com/imghp?hl=ko)	얼굴의 형태를 이용하여, 특히 눈과 입을 중점으로 표현하였다. 소외감은 타인을 보는 시선과 비교하는 말을 통해 찾아온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4> 소외감을 표현한 작품 중 re - design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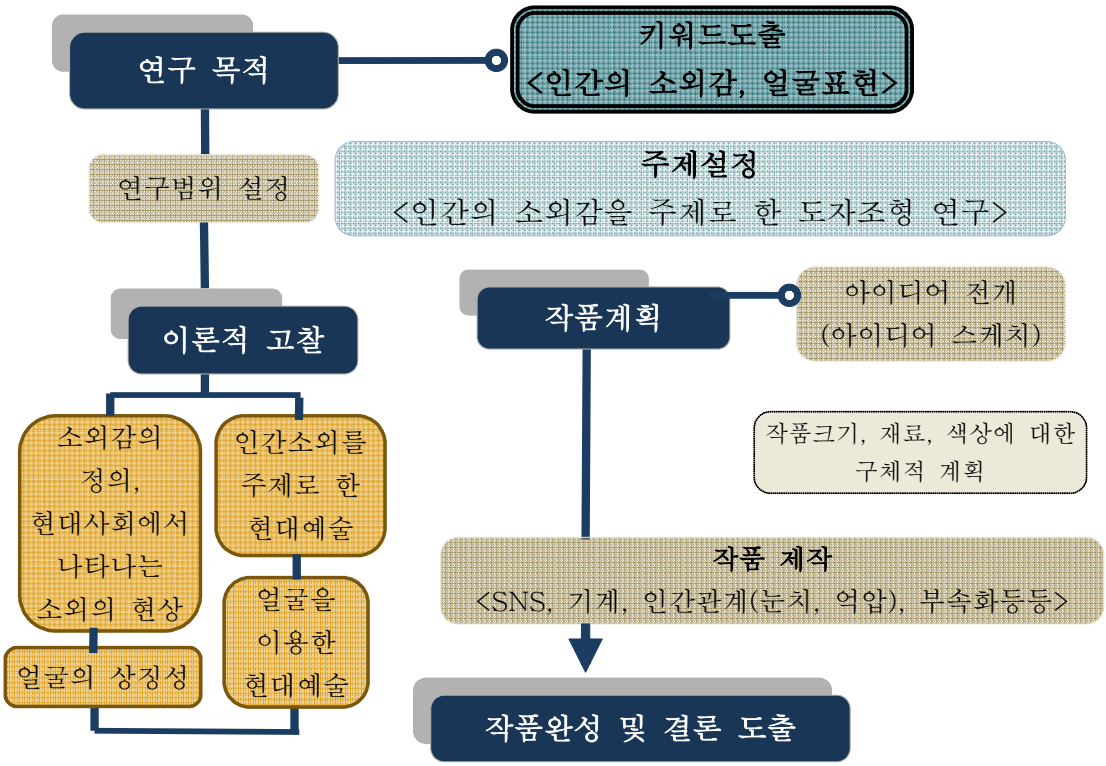
소외감을 표현한 작품 중 re - design 이미지	
이미지	내용
(출처:www.google.com/imghp?hl=ko)	얼굴을 표현한 현대예술 중 두 작품을 리 디자인 한 작품으로 얼굴의 양면성을 이용하여 소외감을 본인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작품제작계획

작품제작은 아래의 <그림 19>와 같이 진행된다.



<그림 19> 작품계획도

작품제작은 위의 작품계획도에서와 같이, 주제가 설정되면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구범위를 설정을 함으로써,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작품계획이 이루어진다. 작품의 성형방법, 재료, 크기, 색상 등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작품제작이 실행된다.

얼굴 표현을 중심으로 소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외감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현대사회 속에서 느낀 소외를 조형적으로 풀기 위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는 얼굴을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형감과 얼굴을 구조적인 변형시켜 인간소외를 표현 하고자 한다. 특히 인간소외는 본인이 타인과 비교를 함으로써 소외가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하여, 얼굴의 형태 중 눈과 입을 강조를 시켜 현대인의 인간소외의 문제점을 표현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소외의 현상에서 오는 상실된 자아의 회복방안을 찾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데 있으며, 인간은 원초적이며, 쉽게 자기를 깎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이 깎여지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타인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딪히면서 자신의 내면을 깎여져야 한다고 본다.

작품의 형태는 소외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시각화하는데 주력하였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깎이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연구자의 철학을 담아, 각진 형태를 주로 하였다.

내면의 어두움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골드망간유와 천목유를 사용하였고, 던컨 안료[60]와 화장토와 안료를 결합하여 작품의 포인트 작업을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철학을 전달하고자 전반적으로 판 작업과, 속 파기 작업을 통해 부조형태로 제작하여, 부재료로써 스텐 미러판을 사용하여,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 또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60) 던컨안료: 던컨안료는 던컨(DUNCAN) 이라는 외국 회사에서 나오는 도자기용 채색 물감이로 중화도 안료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작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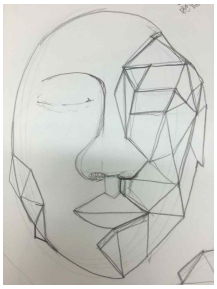
얼굴 표현을 중심으로 자아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인의 소외감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조형적으로 얼굴을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인 얼굴의 형태와 얼굴의 구조적 변형을 보여주고자 한다.

(작품1, 2, 3, 4)까지 작품 형태들을 보면, 일반적인 얼굴의 형태와 각진 형태를 대비시켜 소외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깎여져야 한다고 봄으로써, 각 사람의 삶의 시간 속에서 깎여지고,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과정 또한 힘들더라도 본인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아도 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품5, 6, 7, 8)은 얼굴의 형태를 변형시켜 형태의 왜곡함으로 단순화 시킨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자신의 왜곡된 모습과 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억압과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 혼돈의 도시의 모습들로 현대인의 소외를 표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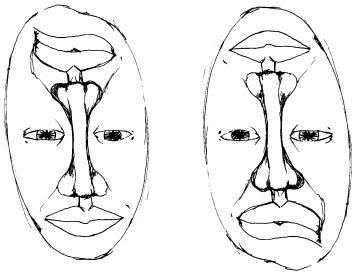
1) 얼굴의 형태를 이용한 표현 (작품1, 2, 3, 4)

<표 15> 디자인 키워드,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1, 2, 3, 4)

	디자인 키워드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1> 소외_사회의 부속품	(출처:www.google.com/imghp?hl=ko)	
<작품2> 소외_이면(裡面) 1	(출처:www.google.com/imghp?hl=ko)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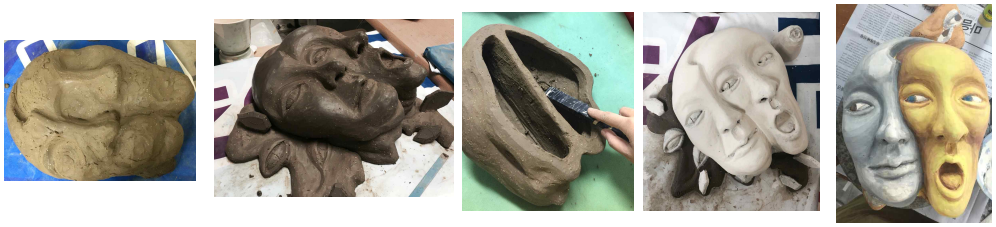
<작품3> 소외_이면 (裡面) 2	 (출처:www.google.com/imghp?hl=ko)	
<작품4> 소외_그림자 (Shadow)	 (출처:www.google.com/imghp?hl=ko)	

<표 16> 작품 성형과정 (작품1, 2, 3, 4)

작품 성형과정	
소외_ 사회의 부속품	
<작품2> 소외_ 이면 (裡面) 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3> 소외_ 이면 (裡面) 2	
<작품4> 소외_ 그림자 (Shadow)	

<표 15>, <표 16>을 보면 작품의 디자인키워드, 아이디어 스케치, 성형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얼굴의 형태를 착안하여, 얼굴의 표정과 페인팅으로 소외감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1>소외_사회의 부속품은 현대인의 사회모습이 기계부속품과 같은 사회적부속화로 인한 소외감을 표현하였고, <작품2>소외_이면(裡面) 1에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수정의 이미지를 착안하여 각진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얼굴의 형태와 부분적으로 표현한 각진 형태와 색체의 대비 줌으로써, 현대인들이 소외된 내면의 모습들을 스스로 감추고, 본인의 내면을 깎여지는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깎여져 가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생각하는 소외감을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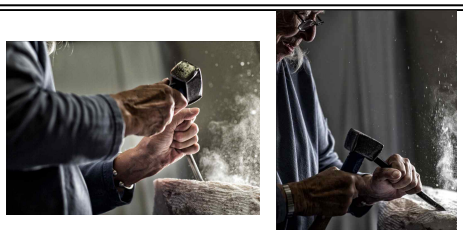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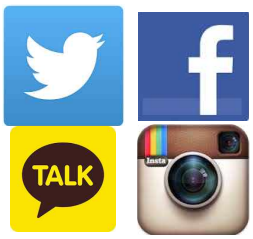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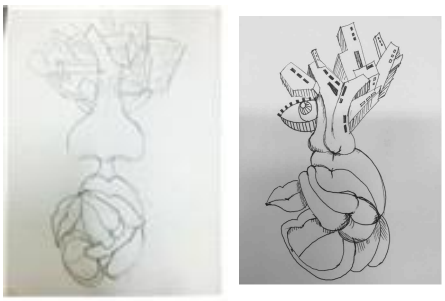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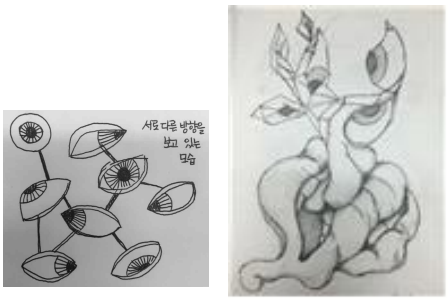
또한 <작품3>소외_이면(裡面) 2, <작품4>소외_그림자(Shadow)에서는 본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외감은 타인의 말과 비교의식으로 부터 온다고 생각하여, 대표적으로 키스해링의 팝아트의 느낌과 소외, 불안, 억압된 감정, 시선 등등 영어단어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경각심을 알려주고자 팝아트느낌의 페인팅표현으로 제작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얼굴의 구조적 변형을 이용한 표현 (작품5, 6, 7, 8)

<표 17>디자인 키워드,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5, 6, 7, 8)

	디자인 키워드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5> 소외_ Look at my self	 (출처: http://www.markkitaoka.com)	
<작품6> 소외_SNS	 (출처: www.google.com/imghp?hl=ko)	
<작품7> 소외_혼돈	(출처: www.google.com/imghp?hl=ko)	
<작품8> 소외-눈치	(출처: http://www.etoday.co.k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18> 작품 성형과정 (작품5, 6, 7, 8)

작품 성형과정	
<작품5> 소외_ Look at my self	
<작품6> 소외_ SNS	
<작품7> 소외_ 혼돈	
<작품8> 소외_ 눈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17>, <표18>을 보면 디자인키워드, 아이디어 스케치, 성형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얼굴의 구조적 변형을 이용한 표현을 보여줌으로써, 소외는 본인이 타인과 비교를 함으로써 소외가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하여, 얼굴의 형태 중 눈과 입을 강조를 시켜 자신의 왜곡된 모습과 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억압과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 혼돈의 도시의 모습들로 현대인의 소외를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5>소외_Look at my self은 현대사회에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의 내면의 모습과 소외감으로 인해 자존감이 사라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생각한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각 사람의 삶이 시간 속에서 깎여지고 만들어 지는 거라 생각하여, 각자의 자아도 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얼굴의 각진 형태로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작품6>소외_SNS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발전되고,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의 통해 소외감을 표현하고자 하여, 사람들이 타인을 보며 부러워하고. SNS 상으로 자신을 왜곡함으로써, 현실과의 다른 괴리감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얼굴의 구조적변형을 통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외감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7>소외_혼돈에서는 비교의 사회임을 표현하고자 사람들의 입이 엉켜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말로 인해 자신의 내면의 본질이 복잡해지고 혼돈되는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의 혼잡한 모습과,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과 뒷면의 도시의 어두운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소외감을 당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작품8>소외_눈치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억압과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로 인한 소외감을 표현하고자 눈을 이용하여 눈동자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모습과 코를 이용하여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전달하는 중간매체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의 사회활동의 관계 모습과 인간관계에서의 자기 주체가 없어진 소외된 모습을 형상화 시켰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유약시유과정

<그림 20> 유약시유 및 부분채색 과정

<그림 20>에서의 유약시유는 붓을 이용하여 좁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칠해주었다. 유약시유 후 강조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스펀지를 이용하여 닦은 후 색화장토를 만들어 색채의 대비를 줌으로써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던컨 안료을 이용하여 뚜렷한 색채를 줌으로써 얼굴의 형태를 잘 나타나게 채색을 하였다.

<표 19>와 <표 20>에서 유약 조합비와 컬러 투명 유 배합 비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19> 유약 조합비

	투명유	골드망간유	천목유
장석	30	5	43
백운석			
석회석	20		13
규석	30		19
도석			
카올린	20	4	15
코발트		3	
망간		35	
동		5	
루타일			
옹기토		48	
산화철			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0> 컬러 투명 유 배합 비

색깔	안료번호	배합비		비고
		안료	투명유	
Yellow	S91	1.2	1	+ Orange = Gold
Orange	S71	1	1	
Green	K52	0.6	1	+Yellow = Yellow green
	K54	1	1	+Cobalt Blue= Blue green
Cobalt Blue	K81	0.5	1	
Purple	P44	0.4	1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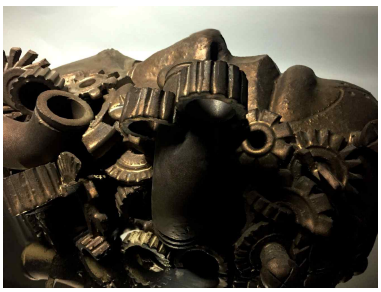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작품해설

[작품 1] 소외_사회의 부속품

· Material : 조형소지, 금속망간유,
· Process : 속 파기기법, 부조
· Firing : 1차 소성 : 850℃, 2차 소성 : 1250℃(산화소성)
· Size : 480 X 320 (mm)

디테일 컷



현대사회에서 현대인의 모습이 마치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한다. 능률이 높아야만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지면서, 현대인들은 '차라리 나는 기계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기계의 능률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 개성의 상실된 모습과 인간의 존엄성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인 인간의 박탈감, 소외감을 표현하고자 하여, 기계의 부품들을 만들어 반쪽의 얼굴의 형상에 기계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하여 인간의 개성의 상실된 모습과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1] 소외_사회의 부속품, ∅560 X 3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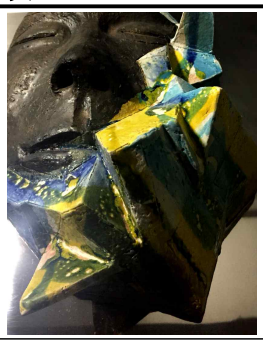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2] 소외_裡面(이면) 1

· Material : 조형소지, 금속 망간유, 컬러 투명유
· Process : 속 파기기법, 판 작업기법, 부조
· Firing : 1차 소성 : 850℃, 2차 소성 : 1250℃(산화소성)
· Size : 560 X 340(mm)

디테일 컷



인간은 원초적이며, 쉽게 자기를 깎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이 깎여지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타인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딪히면서 자신의 내면을 깎여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의 소외의 현상에서 오는 상실된 자아의 회복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외면의 모습은 그대로 이지만 내면의 모습은 각이 진 모습으로 대비를 주어 자아내면의 이중성과 현대사회의 인간소외현상에서 나타난 상처받은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2] 소외_裡面(이면) 1, ∅560 X 340(m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3] 소외_裡面(이면) 2

· Material : 조형소지, 금속 망간 유, 투명 유, 던컨안료
· Process : 속 파기기법, 판 작업기법, 부조
· Firing : 1차 소성 : 850℃, 2차 소성 : 1250℃(산화소성)
· Size : 380 X 180 (mm) - 3개

디테일 컷

이 작품은 소외받은 현대인의 얼굴의 표정을 입과 코를 중심으로 위, 아래 입술의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눈을 감은 모습,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눈에 힘이 없는 모습,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 등이 보인다. 전체적인 입술의 모양은 앙 다물고 있는 모양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소외라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alienation (소외), inner conflicts (내면의 갈등), suppressed feelings (억압된 감정), eye line (시선), isolation (고립)등 소외와 관련된 단어로 보여주고 팝아트적인 느낌을 주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3] 소외_裡面(이면) 2, ∅380 X 180(m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4] 소외_그림자 (Shadow)

· Material : 조형소지, 금속 망간 유, 투명 유, 던컨안료
· Process : 속 파기기법, 판 작업기법, 부조
· Firing : 1차 소성 : 850℃, 2차 소성 : 1250℃(산화소성)
· Size : 330 X 220 (mm)

디테일 컷

이 작품은 소외당한 인간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색채 대비를 주어 한쪽의 얼굴은 색이 있고, 다른 반쪽의 얼굴은 마치 흑백을 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의 이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한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잃어가는 과정을 표현 하였다.

마치 얼굴이 이어지는 느낌을 주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말들로 시선이 집중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4] 소외_그림자 (Shadow), ∅330 X 220(m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5] 소외_Look at myself

· Material : 조형소지, 금속 망간 유, 투명 유, 던컨안료
· Process : 속 파기기법, 판 작업기법, 부조
· Firing : 1차 소성 : 850℃, 2차 소성 : 1250℃(산화소성)
· Size : 250 X 130(mm): 1개, 180X100(mm): 2개, 150 X 80 (mm): 5개

디테일 컷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중요도가 다르지만 본 연구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보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 가고자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속 에서 소외감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더 알아가는 것을 표현하고자 일반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얼굴의 형태가 아닌 각진 모습을 착안하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시간이라는 속에서 깎여지고, 만들어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타 재료인 거울테이프를 사용하여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여 자아의 내면을 들어다 보고 성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식하는 목적을 두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5] 소외_Look at myself,

∅250 X 130(mm), 180 X 100(mm), 150 X 80(m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6] 소외_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 Material : 조형소지, 금속 망간 유, 투명 유, 던컨안료
· Process : 속 파기기법, 판 작업기법, 부조
· Firing : 1차 소성 : 850℃, 2차 소성 : 1250℃(산화소성)
· Size : 830 X 600 (mm)

디테일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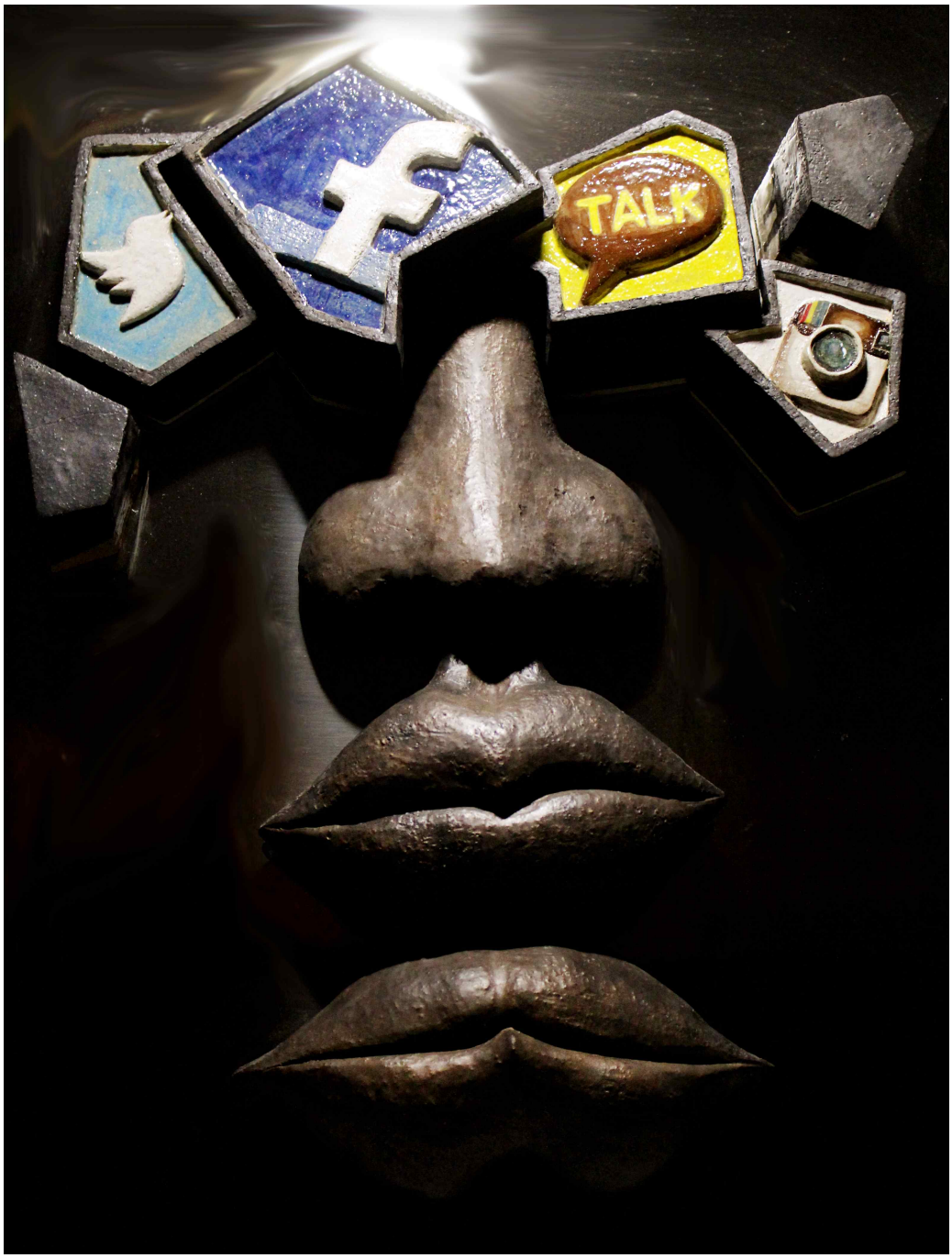
지금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발전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화 기술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스마트 폰 사용비중이 높아지면서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손에는 스마트 폰이 다 쥐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SNS속에서의 이면적인 모습이 있다. SNS을 통해 소외감이 나타남으로써 본질의 모습은 숨기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을 올려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동경심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와 자기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특히 얼굴의 구조적변형을 통해 눈을 대표적인 SNS의 대표적인 아이콘 (카카오 톡,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표현하고 입을 거꾸로 배치하여 왜곡된 입을 보여주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6] 소외_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830 X 6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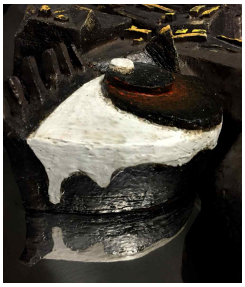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7] 소외_ 혼돈

· Material : 조형소지, 금속 망간 유, 투명 유, 던컨안료
· Process : 속 파기기법, 판 작업기법, 부조
· Firing : 1차 소성 : 850℃, 2차 소성 : 1250℃(산화소성)
· Size : 1140 X 660 X (mm)

디테일 컷



도시 속에서 나타나는 혼돈의 모습과 꽉 막힌 도로의 모습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현대사회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모습 중 도시의 모습을 선택하여, 도시의 이면적인 모습인 밤의 도시를 선택하였다. 타인을 보며 비교하고 의식하는 말들로 인해 나타나는 소외감을 보여주고자 타인의 입들이 엉켜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눈을 보면 정면을 바라보는 눈이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루마니아 속담을 보면 '타인의 지혜로는 멀리까지 갈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멀리 가고 싶으면 자신을 재정비하고 잘 다듬어야 한다고 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7] 소외_ 혼돈, ∅1140 X 660(m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8] 소외_ 눈치

· Material : 조형소지, 금속 망간 유, 투명 유, 던컨안료
· Process : 속 파기기법, 판 작업기법, 부조
· Firing : 1차 소성 : 850℃, 2차 소성 : 1250℃(산화소성)
· Size : 930 X 64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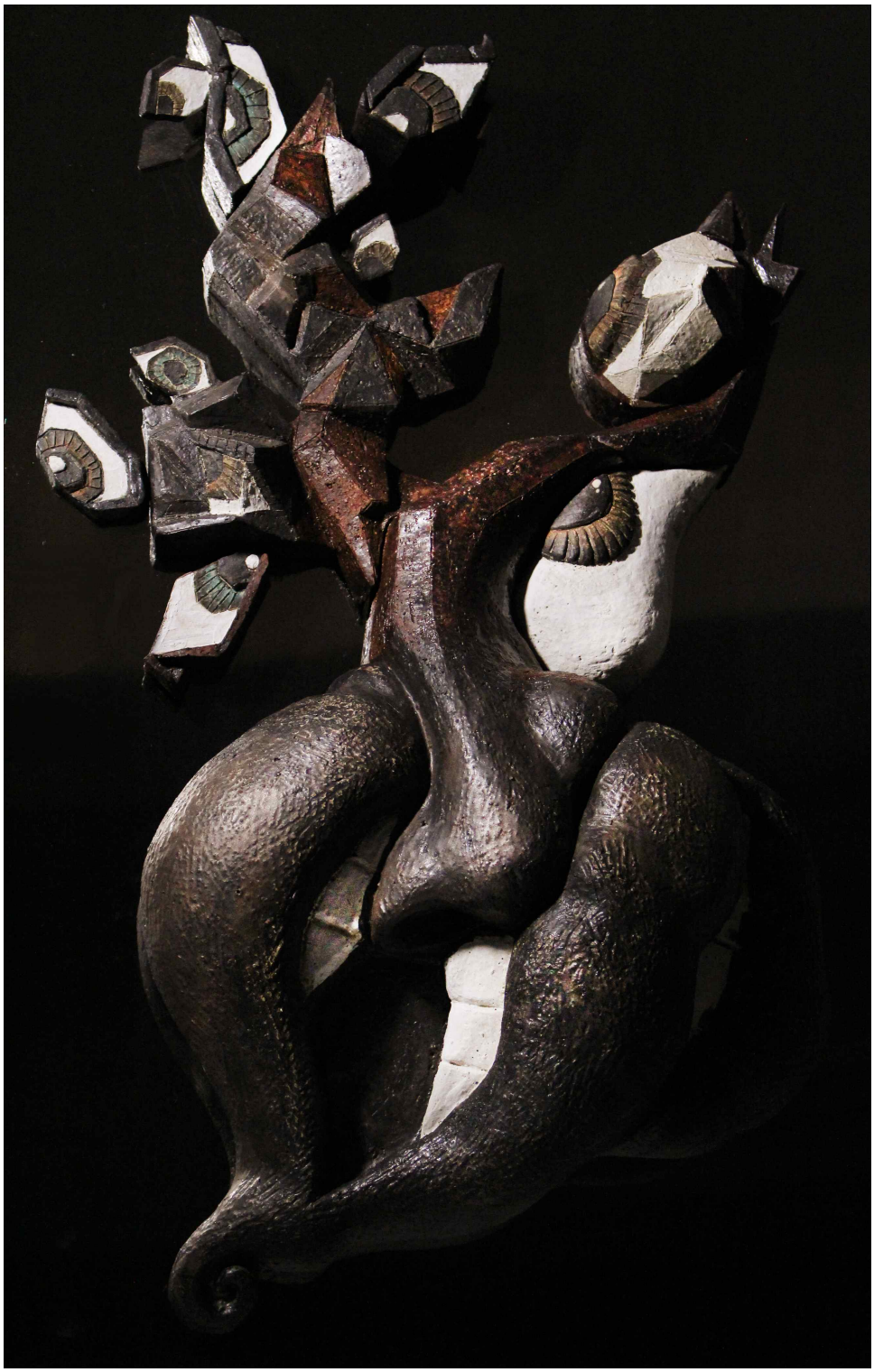
디테일 컷

현대사회에서 모습 중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억압과 타인을 의식하고 눈치 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소외감을 표현하였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 중 '눈'을 모티브로 잡아 서로 마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마주치지 않게 눈동자를 배치하고, 입이 코를 물고 마치 삼키는 듯 느낌을 주어 타인의 말들로 인해 억압당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텐 미러판을 사용하여,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 또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여 작품을 보는 연구자의 모습을 상황설정을 통해서 소외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모습 등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8] 소외_ 눈치, ∅ 930 X 640(m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연출사진] 내면을 바라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소외감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얼굴을 중심으로 표현한 연구로써, 현 사회의 시각과 현대인들의 자아 위치를 회복을 위해 조형제작이 목적이다. 소외감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용어 개념과 철학자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언급하여, 얼굴의 상징성에 대한 고찰과 이를 통한 자아내면을 바탕으로 작업하고자 하였다.

얼굴은 인체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본인은 얼굴의표정과 형태를 통해 인간의 소외감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의 인간소외현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갖는 상실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소외감을 조형화 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이중성, 기계로 인한 부속화로 박탈감, SNS속에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 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억압과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 혼돈의 도시의 모습 등등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통해 소외감의 원인을 모색하여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사회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인간소외의 문제점들이 직면해있다. 앞으로 기술 및 정보 산업의발달로 인해 지금까지 대두되었던 소외현상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이 나타 날것이라 생각된다.

작품제작에 있어 얼굴은 본인의 자화상인 동시에 자아의 내면을 표출하는 공간으로써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본다. 얼굴을 형상화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왜곡, 변형, 단순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생각한 소외감을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얼굴의 형태가 아닌 각진 얼굴의 모습을 착안하여 변형시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을 인용하여 소외된 자아의 내면을 비춰주고 그런 소외된 자아로 남겨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함으로써 큰 목적으로 두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를 진행할 시 소외감으로 인한 자아내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존감을 찾아주고자 내면의 모습인 얼굴표현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작품의 구조적인 변형의 표현과 긍정적인 이미지 도출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사회 이면의 모습과 자아내면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다양한 응용을 시도하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시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조형 배치하여, 이 조형이 소외감으로 자아내면을 잃어가는 사회에서 다시 본인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라고, 조형에 비춰지는 나를 보면 어떤 것이 중요 한지를 알아 갈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단행본>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인간사랑, 2001.

변광배,『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출판사, 2004.

열화당 편집부, 『현대미술 용어사전(미술문고 17)』, 열화당, 1976.

임춘식,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장진호,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교육의 의미와 과제』, 배영사, 1986.

정문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정영도, 『철학사전 개념의 근원』, 이경, 2012.

Ernst Cassirer(저)·최명관(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창, 2008.

Hajo Duchting(저), 최정윤(역),『어떻게 이해할까? 표현주의』, 미술문화, 2007.

Jack Spector(저), 신문수(역) 『프로이트 예술미학』, 풀빛, 1998.

Max Picard(저), 조두환(역)『사람의 얼굴』, 책세상 1994.

R.Tucker(저)·조희연(역), 『현대소외론』, 참한문화사, 1983.

<학위논문>

강현수, 「얼굴형상을 통한 억압된 자아 표현 연구」,홍익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13.

권수경, 「얼굴을 이용한 도자 표현 연구」,국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김규연, 「육면체 변형을 통한 도자 조형 연구」,상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4.

김종형, 「인간학적 소외론'의 철학적 기초」,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석창원, 「초현실주의 양식에 근거한 도자조형연구」,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성수연, 「얼굴을 통한 자아표현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오선경, 「얼굴을 통한 인간의 내면성 도자표현연구」,공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유 정, 「얼굴이미지를 응용한 도자 조형 연구」,호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이예원, 「얼굴이미지를 응용한 도자 실용기 디자인연구」,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이재진, 「인간소외현상을 표현한 도자조형연구」,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4.

이지영, 「인간의 소외감을 상징화한 조형연구」,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조용진, 「얼굴 표현양식의 한국적 근대성」, 월간미술서울 ; 중앙일보사, 2000.

조하나, 「오브제를 활용한 삶의 은유적 표현 연구」,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허혜진, 「현대사회의 인간소외를 표현한 도자 조형 연구」,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문헌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http://blog.ohmynews.com/seulsong/310462

http://hanja.naver.com

http://mahane1004.blog.me/110152825951

http://photohistory.tistory.com

http://sati0829.blog.me/220193345856

http://sugayasoap.co.kr/39584806

http://www.claypark.net

http://www.google.co.kr

http://www.ceramicstoday.com

Collection @ chosun